생산성 제로인 축복의 실효성

(민24:1~25)

10.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11.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4.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15. 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산성 제로인 축복의 실효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산성 제로인 축복의 실효성’
여러분! “네 자녀를 축복하라! /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의 부제는 ‘자녀 양육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입니다. 다 외국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복을 받고 살기도 참 어렵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자녀를 축복하라! /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130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죽을 때가 돼서야 자녀를 축복하게

되고, 아버지인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죽을 때가 돼서야 축복을 합니다.
'네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책들 중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에서의 절규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아버지가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고 말할 때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절규하는 내용으로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축복을 해주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130살의 험악한 세월이 끝난 뒤에야 그 동안 바라고 있던 모든 축복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복이 무엇인지 아는데 13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것이 진짜 좋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앎이 없으면 복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3: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아도 부모는 본성적으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복을 비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복이 아니라 마음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담아두면 변비가 걸리는 배설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돈,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서 자꾸 배설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준다고 할 때의 내용물은 그런 배설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향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이 생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인 축복을 하면 삶에서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에도 없었던 복들이 막 생겨나면서 바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화를 비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저주들이 그 사람의 삶에 주어질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이나 점술가나 복술가들이 저주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저주나 복이 생산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향해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저주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복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생산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은 기차 레일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경춘선 경인선의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위를 수천 수억 명

이 지나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은 이미 레일로 깔려있습니다. 그 저주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주어도 복이 생산되지도 않고 복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삶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는 생산되지 않고 축복과 저주의 실효성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나 저주를 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축복의 삶과 저주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한다면 저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축복의 레일로 바꿔 타는 것일 수는 있어요. 유일하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것을 알고 축복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이론적으로라도 저주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축복의 레일을 달리는 사람을 저주의 레일로 바꿔 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저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축복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의도가 깨어지고 세 번씩이나 연거푸 축복을 하게 된 자가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면 그 사람의 삶에서 복이 생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를 빌면 그 사람의 삶에서 생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오해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과 화를 비는 저주는 생산성이 제로입니다. 오직 정해진 저주의 길과 복의 길을 각 사람이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렇게 축복의 레일을 달리고 있을 때에는 저주의 말을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저주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부모랍시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자녀를 위해 진짜 축복을 해주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발람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일에 어마어마한 복채에 대한 철옹성 같은 애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접신을 시도하고 두 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저주의 의도를 깨고 본의 아니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되니 발락이 발람을 고용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며 발람을 나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에 발람은 여호와가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저주의 신탁을 이스라엘에게 퍼붓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궤계를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에 먹히고 끝까지 복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발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씩이나 시도했던 저주의 의도가 깨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마지막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시도를 하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에 감동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17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에 걸친 축복의 예언이 본의 아니게 나왔고, 발락의 소원과는 무관하게 복술가 발람이 메시아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복된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락과 발람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마귀에게 접신이 되어서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이 주어지고, 화를 빌면 저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아 살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축복이나 저주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복된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봐야 짖는 개소리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된 예언을 세 번이나 하고 메시아와 연결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치 경부선을 처음 타보는 사람이 중간쯤에서 부산에서 떠나온 기차를 탔습니다. 계속 올라오면서 이 경부선 열차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구 지나고 대전 지나고 수원을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복된 삶의 레일의 출발점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그 길 외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배설물 더미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무병장수해도 배설물 더미 위에서 놀고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많이 얻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배설물을 추구하는 일에 막힘이 없는 것으로 똥을 많이 긁어모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 없이 돈 많이 모으는 것이 똥을 모아놓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데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조차도 이론으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축복'이라면 막연하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복된 삶의 레일은 메시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서 복된 삶의 강이 흐르는데 발람이 강의 하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는 강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배를 저어가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복된 삶의 예언을 하게 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강은 메시아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된 삶의 레일을 마음속에 복원하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림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삶의 레일에 올라 탈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 줄 때에도 실효성이 생기게 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똥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마음에 담으면 다 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똥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복된 레일이 어떻게 깔려있는지를 봅니다. 이 복된 레일 위를 달려가야 하는데 메시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출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계획된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 하는 사건으로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은 메시아의 정신을 앞서 표현하고 있는 사건으로 동일하게 메시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존재의 의미와 메시아를 믿는 것의 의미를 제사법으로 구현한 것이고 예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보내집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 하나의 레일에 수억 명, 수십억 명의 마음이 십자가를 출발점 삼아서 예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사건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담겨지면 예수님은 장사되십니다. '장사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고 '부활하여 하늘을 향해 산다.'는 것은 '하늘로부터만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 지나고 천안 지나고 대전을 지나는 것처럼 레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전부 저주로 쌓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부활해서 하늘을 향해 계셨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내 마음을 담고 올라가십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올라온 그 마음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제가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아버지와 교제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예수님이 교제를 통해 느끼시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3: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인 인격에게도 하시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1: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레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는 예표로 제사를 주신 것이지요.
복된 삶의 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놓으신 복 된 삶의 레일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게 되니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올라갔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이번에는 내 마음에서 빠져 나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게 되면 내 몸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뜻을 내 자식을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내 사업을 향하여 내 배우자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복이 첨가될 수도 없고 생산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채워질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해보다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추구해 가는데 변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미쳤다'라고 하십니다. 미국이 든든히 서야 세상이 편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성연애가 미국연방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이 나면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의 경계도 없애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시애틀은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도 이제까지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서로 앞 다투어서 마치 무슨 의를 행하는 것인 양 이제껏 소수였던 동성애자들에게 박애정신을 발휘하는 것인 양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에 준해서 삶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느라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번역해야 되는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미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오바마도 미쳐서 이것을 '자유와 권리를 향한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서 승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이룰 만큼 많은 교회들도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따라하는 바람에 영성 장사꾼들의 모임이 되고, 영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 세상 것을 향하게 되다보니 철옹성 같은 애착을 가지게 되고 아무리 마음의 뱃속에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에 행복이 없어지니 동성애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변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주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미쳐서 남자가 남자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 배우자를 얻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이 뭐예요? 3차원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놓고는 전부 다시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주실 것이라

고 교회가 가르치고 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영성 장사꾼들이 돼서 변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악관의 대통령으로부터 전 미국이 동성애의 물결로 넘치고 있으니 이 여파가 언젠가 한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저주스러운 여파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곳에서만 이 저주의 물결이 달리는 기차를 향한 짓는 개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밥 먹고 십자가로 사업하고 십자가로 자녀 키우고 십자가로 공부하고 십자가로 밥 짓고 십자가로 산책하고 십자가로 골프치고... 전부 십자가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축복의 길은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저주하고 별의별 난리를 쳐도 이 길 외에서는 복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발람이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라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길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길에 올라탈 것입니까? 메시아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을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것 말고는 복된 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생산성이 제로인 것을 깨닫고 그 실효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